

기 위한 선택이 농후하다. 또 1995~1996년에 폐지할 2기의 원자로로 Barseback과 Ringhals 두 원자력발전소를 선정한 것은 주변의 인구밀도가 다른 발전소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Barseback발전소의 소유자인 시드크라프트사는 에너지행동계획을 불합리,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하면서, 「1990년 중반까지 Barseback의 1기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소(화석연료발전소)의 건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전력부족에 빠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우기 대체전원의 건설이 가능하다 해도 약 150억 스웨덴·클로네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또 전기요금의 인상에 따라 종이펄프, 철강, 화학 등의 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계비를 증대시킴으로써 산업계는 에너지행동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이며, 중요한 외화 획득원으로 되어 있다. 정부부처인 산업성도 산업계에 의존하고 있다. 더우기 정부여당의 지지기반인 노동조합도 원자력발전소의 조기폐지는 스웨덴의 산업구조를 바꿔, 그 결과 산업투자를 감소시켜 실업률을 높인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몇 차례에 걸쳐 신문지상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리고 에너지행동계획에 대해서는 전력수요의 예측이 너무 낮다는 비판도 나왔다. 에너지행동계획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력수요의 신장률이 연간 0.5% 이하여야 되는데, 최근의 실적치(1987년 4% 증가)와는 크게 동떨어

져 있다. 또 사민당의 1990년대그룹이 지적하였듯이 탄산가스의 방출규제는 원자력을 대신할 자원으로서는 유력한 천연가스의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게 된다. 스웨덴의 경우 2010년까지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전력공급의 약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그 자체도 전폐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 어려움과 비현실성이 한층 선명해질 것 같다. 에너지정책을 체크할 1990년 가을에는 원자력 조기폐지계획의 재검토가 필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1989년 4월의 제22회 일본원산연차대회에서 강연한 ABB아톰사 사장 겸 스웨덴원자력산업회의 회장인 L.포겔슈트롬씨는 다음과 같은 말로 강연을 끝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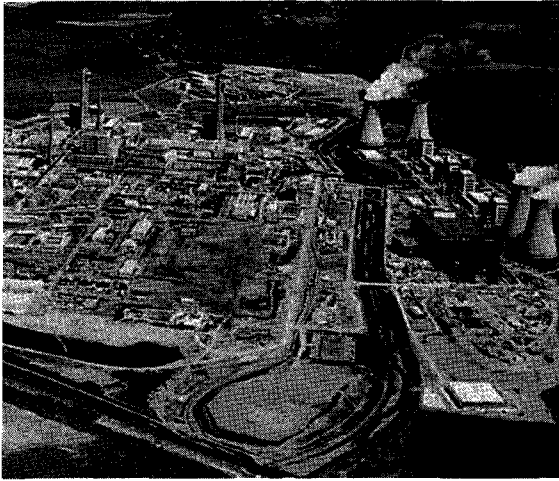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스웨덴은 탈원자력의 해결책을 찾은 것처럼 반원전그룹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고 나는 들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스웨덴은 탈원자력의 정책결정을 하여 그 실시방법을 현재 모색중인데, 이것은 매우 어려우며, 환경 및 경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비용이 들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지금까지의 강연에서 밝힌 사항은 모두 스웨덴의 현행 에너지정책변경을 지지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원자력발전은 에너지생산수단으로서 점점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때에 스웨덴과 같은 선진공업국이 이와 같은 국제적인 발전상황에서 스스로를 분리시켜, 스웨덴에서 경제면, 환경면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대단히 놀랄만한 일이다.」

英國

勞動黨大會, 15年内 原子力全廢決議案 否決

영국의 제1야당인 노동당(닐·키녹당수)의 연차당대회가 잉글랜드남부의 휴양지 브라이튼

에서 '89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어 동당의 종래 간판정책이었던 「핵무기의 일방적



폐기방침'이 수정되어 군축교섭을 통해 핵사감을 목표로 한다는 현실적 정책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1991년 또는 1992년초로 예상되는 차기 총선거에서의 정권탈환을 목표로 노동당이 보다 유연한 노선으로 전환하리라고 전망되고 있으며, 그 유연노선의 일환으로서 「원자력발전을 15년 이내에 전폐한다」는 결의안이 근소한 표차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원자력에의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에너지계획을 책정해 간다는 방침은 채택되었다.

원자력발전의 15년 이내 전폐결의안은 당전국집행위원회로부터 철저히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국광산노조(NUM)의 아서·스카길회장이 제안한 것으로서 1989년 10월 2일 카드투표의 결과 324만 3천 대 285만 9천으로 부결되었다. NUM의 기한부 원자력 전폐제안은 1989년 9월에 브릭플에서 개최된 노동조합회의(TUC)에서는 TUC간부의 희망에 반해 압도적 다수로 가결된 적이 있었다.

스카길씨는 영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만일 최악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100만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며, 원자력발전은 너무나도 비싼 대가라고 당대회의 참가자에게 호소했다. 스카길씨가 제안한 결의안의 취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원자력발전계획의 확대는 생명과 환경에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준다. 에너지연구개발의 중점을 원자력에서 석탄, 석유, 가스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비싼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정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원자로는 향후 15년 이내에 폐지해야 한다. 종래 원자력발전의 추진자들은 원자력추진의 논거로서 필요성, 경제성, 안전성, 환경 및 고용문제를 들어 왔으나, 대체에너지원의 개발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 원자력발전은 불필요하며, 다른 에너지 보다도 40% 비싸다.

이 결의안에 대해 전기·전자·통신·鉛管勞組(EETPU)의 플랭크·체프만대표는 15년의 기한을 설정하는데 반대를 표명하고, 원자력의 전폐는 원자력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10만명의 노동자를 실업자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은 안전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에너지원의 하나라고 단언하고, 원자력발전의 축소와 폐지는 에너지가격의 고등을 초래해 제3세계 국가들에 의한 에너지입수를 어렵게 하는 결과, 그 국가들의 경제개발에 제동을 걸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국집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존·에번스하원의원은 「노동당은 신규 PWR 발전소의 건설도, 기존 원자력발전소 내용연수의 연장도 하지 않겠지만 전국집행위원회로서는 원자력발전소의 폐지를 15년 이내에 실시한다는 기한설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서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폐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인 방법이 확립되지 않아 15년이라는 기한을 정하는 것은 당 자신 뿐 아니라 선거민을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의 에너지대변인 토니·브레이어 하원의원은 「에너지절약이 에너지생산과 똑같이 중요하며, 에너지수요의 상당부분은 양질의 재생가능에너지로 충족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에너지정책의 역사에서 최초로 환경문제가 에너지정책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브

레이어 의원은 「노동당 정권하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원자력폐지의 타임테이블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에의 도전에 몰두해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더우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사업의 민영화에 반대했다.

노동당대회 투표에서 NUM제안의 결의안이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이유로서 ① NUM은 TUC대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노조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노동당대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노조가 노동당에 가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지를 얻지 못한 점, ② 원자력추진의 EETPU는 TUC에서 배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TUC대회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노동당대회에는 출석한 점, ③ 지금까지 15년간의 기간부 원자력전폐에 찬성해 온 건설노조가 태도를 변경한 점 등의 세가지 점을 들 수 있다.

1979년, 1983년, 1987년 과거 세번의 총선거에서 보수당에게 저 대처정권을 10년 이상이나 허용해 온 것은 노동당의 현실에서 벗어난 정책이 패인으로 분석되어 정책의 재검토를 해 온 성과가 브라이튼의 노동당대회에서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989년 10월에 들어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노동당이 5~9% 보수당을 상회하는 지지를 얻고 있듯이, 차기선거에

서의 정권탈환이 시계에 들어온 것이 동당정책의 현실로선화에 큰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15년 이내의 전폐결의안은 비현실적이라 하여 부결되었지만, 원자력에의 의존도를 감소시켜 원자력으로 부터의 탈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존·웨이컴 에너지장관(보수당)은 노동당의 원자력폐지방침에 대해 무책임하고 지극히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함과 아울러, 「원자력의 폐지는 대기오염에 관련된 석탄화력에의 의존도를 높여 NUM의 전투주의자 수중에 에너지정책을 위임하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영국하원의 각 당파별 의석수〉

	1987年 6月 의 總選舉	1983年 6月 의 總選舉
保守黨	376	397
勞動黨	229	209
自由黨	17	17
社會民主黨	5	6
北 아일랜드· 유니온리스트계파	9	11
스코틀랜드민족당	3	2
웨일즈민족당	3	2
기 타	8	6



原電 廢止에 懷疑的

西獨의 알렌스바하輿論調查研究所는 바가스도르프재처리계획이 중지된 것과 관련하여 일반국민이 원자력발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작년 여름에 17세 이상의 2,05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어떤 정당에 속하고 있는가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었다.

크리스트교 민주·사회동맹(CDU·CSU)에 속하고 있는 사람중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계속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63%였으며, 사